“속절없는 8년 세월…슬픔만 흐르네요”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10일 열린 선상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진도군 맹골수도 참사 해역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르포-세월호 8주기 맹골수도 선상추모식

먹먹한 추모식 말없이 헌화
요원한 진상규명 미안함에
아이들 이름조차 못 부르고
야속한 바다만 묵묵히 응시

“보고 싶다, 아들아!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랑한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8년이 지난 오늘도 도저히 슬픔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제8주기 세월호 선상추모식이 열린 10일 오전 7시 목포시 죽교동 목포해경전용부두. 안산에서부터 5시간여 새벽길을 달려 목포를 찾은 유가족들은 배에 탑승하기 전부터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1년에 단 한 번 떠나버린 가족을 만나는 날이지만 동시에 가장 마음 아픈 날이기도 하다. 도와줄 길도 없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날,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 구조조차 받지 못한 아이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 했다.

세월호 유가족 28명을 비롯한 4·16재단 관계자 등 66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 3000t급 해경함정 3015호에 탑승해 진도 맹골수도로 출항했다.

유가족들은 3시간여 뒤, 항해 거리 96여km(52마일)을 지나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앞바다에 도착했다. 미처 꽃피지 못한 아이들을 집어삼킨 야속한 바다에서는 ‘세월’이 적힌 노란색 부표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참사 해역에 이르자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왔다. 단원고 2학년 1반 고(故) 문지성양의 아버지 문종택씨가 품에 넣어 둔 하모니카를 꺼내 ‘천개의 바람’을 연주했다.

문씨는 “하모니카를 오랜만에 불어서 제대로 연주했는지 모르겠다. 떠난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싶어 하모니카를 준비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슬픔이 더해간다. 오늘따라 같은 아픔을 겪은 유가족 분들과 함께 더 많이 울어줄 걸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말끝을 흐렸다. 유튜브 채널 ‘416TV’를 운영 중인 문씨는 이날도 추모식 현장을 촬영해 유튜브로 공개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나눴다.

추모식은 먹먹하고 조용했다. 추모식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가 세 차례 울리자, 유가족들에게는 8년 동안 낫지 않은 아픔이 다시 밀려왔다.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묵념을 마친 이들은 차마 아이들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하나 둘 국화꽃을 바다에 떨어뜨렸다.

단원고 2학년 7반 고(故) 박성복군의 아버지 박창국씨는 추모식이 끝나고 ‘세월’ 부표가 수평선 너머 사라질 때까지도 함정 난간을 잡은 손을 쉽게 놓지 못했다.

박씨는 “매년 찾아와 추모식을 치렀다. 매일 매일 아이 생각에 가슴 아프지만, 사고 해역에 찾아올 때면 더욱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며 “살갑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천국에서 편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으라고 전해주고 싶다. 아빠가 많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2학년 8반 고(故) 안주현군의 어머니 김정해씨도 “주현이가 보고싶다. 잘 있냐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다”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

김씨는 “너무 힘들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부모들도 많다. 부모 뿐 아니라 형제·자매들까지 큰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있다”며 “아이와 ‘진상규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오늘도 진상을 꼭 밝히겠다고 재차 다짐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3시께 목포 신항에 세워진 세월호 선체를 찾아 헌화 및 추모식을 진행한 뒤 안산으로 무거운 걸음을 돌렸다.

유가족들은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8년 동안 부르짖었던 진상규명은 요원하고, 지난해에는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나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가족들은 서로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해 지난 8년동안 정부는 진상규명을 방관했고, 지난 대선에는 박근혜 정부의 전신인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 우리가 바라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태호 세월호일반인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304명은 왜 그날 차갑게 죽어야 했는지 아직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속절없이 시간이 지나 원인도 처벌도 없는, 지나간 일로 치부되진 않을까 답답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인 오는 16일에도 선상추모식이 열린다. 이날은 유가족과 지인을 포함해 50여명이 모여 참사 해역을 찾을 예정이다.

/진도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

보조금 21억 부당 수령 공무원·업자 검찰 송치

1억 받은 완도군청 공무원은 구속

물김 세척 설비 단가를 부풀려 20억원대의 보조금을 과다 신청한 뒤 업체가 자부담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시설을 구축하도록 돕고, 뒷돈을 받아 챙긴 완도군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에 따르면 전남경찰은 최근 김 가공 업체 등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완도군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한 업체 대표 7명과 설비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10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완도지역 김 가공 설비·생산 업자들과 짜고 정부 지원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을 실제보다 많이 타도록 도왔다. 김 가공공장 업체 대표들은 자부담 2억원에 보조금 3억원을 더해 총 5억원 규모의 정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설비업체와 짜고 설비 단가서류를 조작해 업체당 3억씩 총 21억원의 보조금을 부풀려 보조금만으로 설비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A씨는 업체들에 총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가공업체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완도군을 상대로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권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뇌병변 장애학생 상습 폭행

광주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뇌병변 장애학생을 때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북부경찰은 광주 북구 한 특수학교에서 중증 뇌병변 성인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최근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장애 학생을 10여 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복무요원 A씨는 20대 초반의 뇌병변 1급 장애 학생이 점심을 먹지 않는다고 폭행하는가 하면, 러닝머신에서 피해자를 일으켜준다는 명목으로 수건으로 목을 감아올리는 이른바 ‘교수형 놀이’를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몸에 난 상처와 행동 변화 등을 본 피해 학생 가족과 학교 측 고소·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과정이던 지난해 12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사건이 발생한 특수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동 참사’ 하청업체 한솔기업 4개월 영업정지

현대산업개발 징계 추가 가능성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사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이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업체에 하도급을 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처분 역시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8일 학동4구역 철거공사 1차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 1월 이 업체에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4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으나, 이번에 부실시공 혐의는 판단을 미루고 불법 재하도급 혐의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솔기업의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도 징계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또 다른 혐의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해당 하수급업체(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온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등포구의 결정이 나오면 현대산업개발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관련 처분을 확정해 앞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에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는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학동 재개발조합 전 임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금품 받고 업체 선정 부당 관여

억대 뇌물을 받고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재개발 조합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개발조합 전직 이사 이모(6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형평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 공사 수주 비리 등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금품을 받은 시점이 조합 이사 취임 전이었고 공사 수주 대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과 지장물 철거·정비기반시설 공사 입찰 경위 등을 볼 때 부당하게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재개발사업 브로커 활동을 했던 문흥식(62)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함께 2019년 조합이 발주한 철거 및 정비 사업체 선정에 힘써주겠다면서 업체 2곳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수사기관은 건물이 무너진 물리적인 원인뿐 아니라 철거 공사 수주·불법 재하도급 등 철거 공사 전반의 비위를 수사했다. 이씨 등 브로커들이 입찰 담합 행위에 관여하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들었고 부실 철거와 불법 재하도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5802	1	순천시 비봉2길22, 104동 7층 706호 [조례동,시대아파트] 37.388㎡	아파트	61,000,000 61,000,000	
2021타경6164	1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56, 106동 10층 1002호 [연향동,동부아파트] 84.90㎡	아파트	188,500,000 188,500,000	
2021타경57148	1	광양시 폭포사랑길94-30,5동 406호 52.18㎡	아파트	37,000,000 37,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1타경56817	1	고흥군 고흥읍 장전신전길 152 단층 33㎡ 단층창고 33㎡ 제시외 단층차양 등 59.8㎡	단독주택	42,259,780 42,259,7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수목포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976 469㎡	대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1타경5741	1	보성군 벌교읍 장좌길93, 나동 3층 304호 80.22㎡	다세대	56,000,000 56,000,000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4618	1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754 595㎡	전	2,320,500 2,320,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경계측량요
2021타경5567	1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65-20 1486㎡	임야	292,742,000 292,742,000	
2021타경5680	1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875-7 496㎡[공유자 오임숙165/496지분전부]	답	22,440,000 22,440,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5987	1	순천시 해룡면 선학리 산78 21322㎡[공유자조영준1/3지분]	임야	71,073,300 71,073,3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분묘소재
2021타경6270	2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산16-6 38723㎡[일부지상송전선통과함]	임야	387,230,000 387,230,000	연고미상분묘소재
2021타경6423	1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69-4 706㎡[지적경계복원측량요]	전	25,416,000 25,41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56152	1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141 51471㎡	임야	576,475,200 576,475,200	분묘소재,철탑및송전선로소재
2021타경56756	1	순천시 별량면 죽산리 300-1 509㎡[공유자오범환2/13지분전부.제시외건물및버섯재배사매각제외.경계측량요]	대	4,149,900 4,149,900	지분매각.토지만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1타경5864	1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724-1 602㎡	대	355,524,950 355,524,95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수목포함
		순천시 해룡면 대안마산길 24 소매점 1층 118.75㎡ 2층76.96㎡ 제시외 다용도실 등 100.7㎡	근린시설		
2021타경6102	1	여수시 충무5길 9-4 1층[점포]76.07㎡ 2층[사무실]76.07㎡ 3층[주택]47.47㎡	점포,사무실,주택	302,410,110 302,410,110	일괄매각
		여수시 충무동 576 102㎡	대		
2021타경6270	1	구례군 산동면 탑정리 895-5 1585.1㎡ 제시외수목 소나무 등 36주, 조경석 1식	잡종지	729,935,380 729,935,3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제시외수목,제시외물건[조경석]포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255 에이동호 단층 341.90㎡ 단층창고 21.60㎡ 제시외 단층창고 등 71.8㎡	근린시설		
		동소 비동호 단층 235.39㎡	근린시설		
2021타경6324	1	여수시 학동 74-6 275.4㎡	대	317,822,980 317,822,98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여수시 거북선공원1길 13 1~3층각224.81㎡[물건번호1:공유자최민용2/10지분전부]	근린시설		
[자동차,중기]					
2021타경57865	1	사용본거지:포천시 내촌면 진금로 73 등록번호:78고1019 차명:뉴그랜버드 연식:2019[소유자명의이전및차량번호변경됨[변경전등록번호:전남70자3270[경기76자3869]].영업용에서자가용으로용도변경됨]	자동차	130,000,000 130,000,000	보관:순천시해룡면복성리469-1,이수자동차매매상사[061-743-2227]
2022타경50342	1	사용본거지:서울 강남구 역삼로9길 25 202호 [역삼동] 등록번호:89보9903 차명:코란도스포츠 연식:2016	자동차	7,500,000 7,500,000	보관:순천시서면압곡리568-1,순천자동차매매상사[061-721-39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22. 4. 25.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5. 2.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신영민